

2010년 협회조경수모범농장견학과 WorkShop을 마치면서...

“모범농장과 협회회원들이 함께한 1박2일에 여정”



주요일정

- ◆ 견학일시 : 2010. 9. 3 ~ 9. 4(1박2일)
- ◆ 참여인원 : 86명(관광버스 2대대절)
- ◆ 견학농장 : 한일조경건설(충북), 한송(전북)
장흥식물원(전남), 대영농장(경남)
- ◆ 워크샵 : 발표자-장흥식물원 대표 김종필
- ▶ 황칠나무, 비파나무의 특성과 재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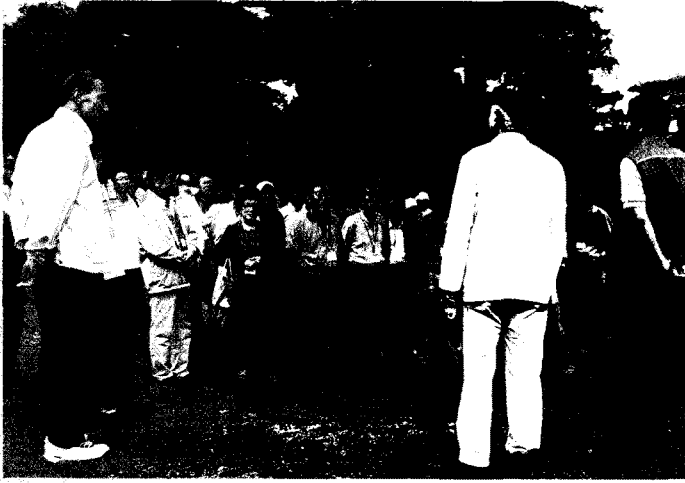
1. 견학목적

우리나라의 선진지 조정수 생산 재배 농가를 방문을 통한 재배기술을 습득하고, 이론적인 설명과 동시에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을 함으로써 바쁜 일상 속에 접할 수 없었던 경험을 하며, 금번 견학을 통한 평가를 함과 동시에 회원들 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2. 견학내용

- ◎ 9월 3일(첫째날)
 - 국립산림과학원 -> 대전역 -> 한일조경건설(대표 한윤구) -> 중식 -> 한송농장(대표 윤준열) -> 숙소(금호리조트)로이동 -> 석식 -> 워크샵(대표 김종필)

(사)한국조경수협회(회장 김자영) 회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동행하여 출발한 전국단위에 모범농장 4곳의 견학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 회원분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기에 별탈 없이 진행이 되었다.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다. 농장 견학이 끝난 후 한윤구 회장님의 농장경영에 대한 생각을 듣고 회원분들과 함께 단체사진 촬영 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전국각지에서 모인 협회 회원들과 함께 처음 방문한 농장은 충북 청원군 소재 한일조경건설(대표 한윤구)이었다. 농장에 도착하니 이미 한윤구 회장님, 유명수 부회장님 충북지회 회원님께서 우리일행들을 따뜻이 맞이하여 주셨다. 김소용 차장님 소개로 이어진 넓은 잔디밭을 배경으로 한 농장 곳곳은 대형목들이 자리 잡고 있고, 잘 가꾸어진듯한 소나무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깔끔한 모습을 이루고 있었다. 친환경, 생태적 환경을 선도를 목표삼아 조경공사, 토목, 관상수 생산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두 번째 농장인 전북 고창군에 위치한 한송농장(대표 윤준열)에서는 최정희 이사님이 농장안내를 해주었다. 농장에 식재한 다양한 조경수생산 현황유인물에 따른 설명과 함께 농장 길을 따라 올라가다보니 수려한 경관이 한눈에 들어왔다. 산등성이에 밀어 자리 잡고 있는 농장은 여러수종과 그 중간에 대형목들이 식재되어 있었다.



조경설계 시공, 관리 전문 업체답게 조경수에 대한 관리나 전문조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다. 잠시 휴식시간 회원들 간에 담소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얘기를 전달하고 전북고창이란 지역특성에 맞게 고창수박을 선뜻 내어 주셔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었다.

이어 바쁜 하루에 2곳의 농장견학을 마치고 들어선 전남 화순 숙박지 “금호리조트”호텔 앞에서 이임삼 고문님, 이한승 부회장님, 김민우 조합장님과 전남동부회원님들이 친절히 마중하여 주셨다. 해는 저물어 가고 저녁식사와 함께 짐을 풀 사이도 없이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한국조경수협회 김자영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소개와 함께 그 다음날 방문예정지인 장흥식물원의 김중필 대표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가꾸어 오신 조경수 농장 소개와 함께 대표수종인 황칠나무와 비파나무에 대한 소개와 동시에 그에 대한 재배방법을 설명해 주셨다.



었다. 또한 양질의 조경수 생산으로 전국 각지에 조경사업자에 공급함으로써 도시녹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활동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회원들 간에 많은 관심과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장을 떠나면서 김창옥 명예회장님께서 이번 행사에 보태어 쓰시라고 금일봉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김자영 회장님 주재로 자유토론시간을 가져 많은 회원분들이 농약살포, 병해충방제들 많은 의견을 발표하는 등 밤늦게까지 피곤한 기색 없이 열의가 대단하였으며, 이로써 이날 워크샵이 마무리 되었다. 바쁜 하루를 마치고 지인들과 어울려 담소를 나누며, 밤은 깊어가고 첫날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

◎ 9월4일(둘째날)

- 조식 후 -> 장흥식물원(대표 김종필) -> 종식 후 -> 대영농장(대표 김무철) -> 종료

환경이 수려한 호텔에서 일박하고, 일정을 조금 앞당겨 조식 후 다음 예정지로 출발하였다. 어제 워크샵 진행을 해주신 전남 장흥의 장흥식물원(김종필대표)이었다. 1시간 30분여를 달려 도착한 그곳은 마치 우리나라가 아닌 곳에 있는 듯 하였다. 아열대 우림지역에서와 같은 이국적인 광경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남녘 제일의 명산인 천관산(天冠山)을 끼고 넓은 들녘 한가운데 자리한 장흥식물원은 남쪽의 더운 기후를 잘 이용한 황칠나무, 비파나무, 후박나무, 굴거리나무, 가시나무류와 종려, 소철등 각종 난대수종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각종 난대수종들의 묘목을 생산할 대형비닐 하우스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농장은 경남 사천의 대영농장(김남영대표)이었다. 늦더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창옥 명예회장님, 송승용부회장님, 김광호 경남서부지회장등 많은 회원님들께서 따뜻이 맞이하여 주셨다. 농장은 다양한 수종과 수형이 잘 다듬어진 조형목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농장을 올라가면서 모과나무, 자귀나무, 낙상홍, 수양매실, 수양느릅, 수양회화, 수양애기사과등 조경수, 특수목들과 수형 좋은 소나무들이 넓은 포지 곳곳에 자리 잡고 있



마지막으로 대영농장 김무철 대표님께 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농장을 방문해 주신 분들의 인사말씀을 전하고 또한 (사)한국조경수협회 김자영 회장님의 모범농장 견학을 마치는 소감과 동시에 앞마당 조형목을 배경으로 금번 모범농장 견학에 참여 해주신 회원님들의 단체사진을 끝으로 모범농장 4곳에 견학을 마쳤다.

모범농장견학을 마치며...

처음 보는 생소한 회원들에 표정에서 기대감 설레임 반으로 시작된 1박2일에 여정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빠르게 시간이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계신 회원분들이 모이다 보니 서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서먹서먹하지만 저희 협회회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 조경수를 생산하는 많은 회원분들이 서로의 정보공유를 통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저희 조경수협회에 바램과 동시에 견학을 통한 선진 농장을 직접보고 설명을 통한 재배과정과 기술을 배움으로써 각기 다른 농장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협회 중앙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많은 지역 지회 회원님들이 참여하신 관계로 많은 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찾아뵙도록 노력하는 조경수협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행사 취재를 위해 함께해 주신 한국조경신문 정대현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

